



취임사

친애하는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그리고 직원 및 산하기관 그리고, 관련 단체장 여러분!

새롭게 출발하는 참여 정부에서 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아 개인적인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보통신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정보화 촉진과 정보통신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나갈 생각입니다.

저의 이런 각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가족 모두의 열정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동안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으로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퇴임하신 전임 이상철 장관님께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이제 온 국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참여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참여 정부'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국민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연다는 역사적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서, 우리 정보통신부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보다도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를 주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를 세계 일류 국가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그 동안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보통신 발전에 힘써 온 결과, 우리는 세계 속의 'IT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1,000만명, 이동통신 사용자 3,200만명 등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IT산업은 전체 GDP의 15%, 수출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잡아 우리 경제가 견실한 성장을 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현황에 대해 세계의 주요 외신들은 '세계 정보통신의 미래는 한국의 손안에 있다'고 보도하면서 우리를 향한 부러움과 함께 기대를 나타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건과 환경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위기와 함께 해결해야만 하는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과 최근 불거진 북한 핵 문제는 정치적·경제적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정부 차원에서 정보화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후진타오 체제 출범과 함께 IT강국을 천명하고 있어 향후 3~5년 내에 IT산업의 경쟁력에 있어 우리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2000년 이후 계속된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 IT산업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급격한 진전은 계층간·지역간·소득간 정보 격차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1.25일 발생한 인터넷 침해 사고는 사이버 공간상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국내 IT 산업 구조 또한, 제조업 중심의 소수 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S/W·디지털콘텐츠·핵심부품은 취약한 실정이며,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유선은 KT, 무선은 SKT가 여전히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이제 새로운 '참여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열망해 온 변화와 개혁을 위한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라는 3대 국정 목표와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로 집약될 수 있는 4대 국정원리, 그리고, 12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정보화는 경제·사회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수단인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산재해 있는 낡고 부패한 관행을 일소하여 우리 사회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핵심적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보화가 국민들을 정치 과정에 보다 많이 참여케 하여 참여 민주주의를 가능하도록 하게 하며, 그간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소득 격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케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보화라는 수단은 새 정부의 3대 국정 목표와 12대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것이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수단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주요 과제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다음의 몇 가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관 취임사

첫째, 그동안 구축한 세계 최고 수준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식정보사회의 전면화(全面化)를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민원혁신서비스 사업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하여 가정에서 민원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 인사 등 국가의 주요 행정 업무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 지속적인 공공 부문의 정보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안방민원시대를 실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는 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경영 방식을 선진화하여 세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을 한층 더 고도화하는 한편, 제조·건설·금융·의료 등 전 산업을 대상으로 민간부문 정보화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계층간·지역간·소득간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등 정보화 취약지역에 무료인터넷 이용 시설을 확충하고, 소외 계층에 대한 국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는 등 정보격차 없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해 나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 공격과 사생활 침해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튼튼하고 건강한 정보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정보화가 생활화되면서 사이버 공간은 전 국민의 60% 이상이 이용하는 제2의 생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나, 개인정보 유출, 스팸메일 등 심각한 정보화 역기능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 25일 인터넷 침해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공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정보 사회는 어떠한 대규모 재난보다 치명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금융·통신 등 주요 부문시설에 대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예·경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디지털 안전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보호 문화 운동의 확산을 통해 정보보호를 생활화해 나가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계 일류의 IT산업 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부상한 IT산업은 향후 30년 이상 세계와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이 될 전망입니다. 이에 발 맞춰 우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인 IT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S/W, 디지털콘텐츠 등의 IT서비스 산업, CDMA의 뒤를 이을 새로운 상품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쟁에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World Best/World First의 초일류 기술을 확보해 나가되, 4세대 이동통신, 위성통신, 컴퓨터그래픽스 등 국가 차원의 전략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술력과 도전정신이 높은 IT벤처기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산업 구조를 보다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동북아 IT 허브화 전략 추진을 통해 무역 강국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그간 구축한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중심지, 인터넷 트래픽·스토

리지의 중심지, 사이버 물류·금융의 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고, 국가간 IT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여 세계 최고의 IT 무역 강국으로 발돋움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유효 경쟁의 관점에서 통신시장 규제 정책을 재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후발 사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 필수 설비의 공동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시장경쟁 활성화와 적정 규제 수준 확보를 위해 주기적으로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정분야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우정사업의 고객 만족 경영을 강화하여 국민과 함께 하는 우체국상을 정립하고 경영 효율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도 개방된 시장경제질서를 따르도록 할 것입니다. 통신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민간의 창의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거나 철폐하되,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정보통신부가 국가 성장과 변혁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아낌 없는 노력과 지혜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가족 여러분!

따뜻한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직원간 화합의 정신을 정보통신부가 오랜 전통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체신노동조합과는 지금까지의 긴밀한 유대로 노사화합을 이루어 온 전통을,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좋은 전통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 노력해 나간다면, 보람 있으면서도 즐거운 직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시간이 우리나라가 정보통신 일등국가가 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한 데 모아 새롭게 시작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취임 인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2월 27일

제9대 정보통신부장관 **진 대 제**